

ORA 해외대상 소개

사단법인 오사카외식산업협회(약칭:ORA)는 음식의 수도 오사카에서 1981년10월1일 탄생했습니다. '외식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근대화·합리화를 도모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응하고 음식문화의 창조를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식산업은 1970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EXPO'70'을 계기로 미국 형식의 대규모 패밀리 레스토랑 및 패스트푸드 1호 점 가게가 속속 탄생했습니다.

1980년대는 매년 1조엔 규모로 외식 시장이 확대되고 1997년에는 29조702억엔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30조엔 산업을 눈 앞에 두고 거품경제 붕괴 후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외식시장도 축소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BSE', '조류인플루엔자', '위조식품 문제'등 (음식의 안전·안심)을 크게 뒤흔드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악성 디플레이션'으로 끝이 없는 저가격 경쟁 시대에 돌입해 외식산업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즈 파산 사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서도 큰 영향을 받았고 많은 음식점 매상이 대폭 하락하는 가운데 저가격 음식점이 성공하는 경영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체에 있는 현재 외식업계의 시장규모는 24조엔 정도로 추어됩니다. 현재 업계의 가진 큰 과제는 '출생률 감소/고령화에 따른 시장 축소', '인재확보', '음식의 안전과 안심에 대한 대응', '음식에 관한 교육', '환경 문제'등이 있습니다.

외식산업 성장기에 탄생한 ORA의 현재 회원 수는 약480사(서포트 회원을 포함함).

회원의 점포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교토, 오사카, 고베 그리고 일본 각지로...

나아가서는 미국, 중국, 한국,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쿠웨이트 등의 세계 각국이나 홍콩, 대만 등의 각 지역으로 확산되어 약 1만 4000점포가 되었습니다. 25만 8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손님의 맛있게 먹는 미소를 보기 위해 날마다 세계 각지에서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ORA에서는 설립 당초부터 외식산업의 프로를 양성하는 인재육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신입사원부터 경영자까지 경영,接客 서비스 및 조리 매니지먼트 등을 중심으로 경력 별 교육 연수와 ORA인정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장을 육성하는 매니지먼트 스쿨 개최는 80회를 넘었고 2800명 이상의 졸업생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ORA에서는 시대에 따라 필요로 하는 과제에 대하여 대기업 및 개인점포 회원사가 장벽을 넘어 정보교환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서로 궁리하며 외식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깝다'를 테마로 한 환경심포지엄 개최, 음식의 안전이나 클레임 대응 등에 관한 위기관리사례발표대회 개최, 우수한 인재채용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합동 기업설명회 개최, 대학에서의 제휴 강좌 개강, 각 산지 음식 재료 축진을 위한 현지시찰, 해외 외식사업 및 엔터테인먼트 시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ORA에서는 1985년부터 4 년마다 '음식 박람회 오사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공처 및 재계를 시작으로 여러 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음식의 제전·연회"를 제1회부터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2009년 제7회까지 약420만 명의 방문자에게 먹는 즐거움 및 감동을 맛보게 하고 전통 있는 일본의 음식문화를 알려주고 또한 음식문화 창조에도 공헌하고 있습니다.

ORA는 2011년에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의 미소를 위해, 일하는 직원을 위해, 나아가 외식 업계와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회원일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협회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